

도시화에 의한 공간의 분절과 구성원의 연대*

- 대천마을과 대천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공 윤 경**

The Spatial Segmentation by Urban Sprawl and the Solidarity of Constituents : The Case of Daecheon - Village and Daecheoncheon - Network in Busan*

Kong, Yoon Kyung**

요약 : 본 연구는 부산시 북구 화명2동 대천마을과 대천천네트워크를 사례로 도시화로 인해 야기된 분절화, 위계화가 공간구조만이 아니라 구성원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천천네트워크를 통해 분절된 공간을 넘어서는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그 내면에 작동하는 가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1980~19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천마을은 농촌에서 도시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나였던 공간은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으로 분절되었다. 공간의 분절에 따라 주민들의 구성도 노년층 토착민과 청장년층 이주민으로 나뉘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 지역의 단체들을 연대하여 만든 대천천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었고 아울러 자신들의 거주공간을 분절되고 위계된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삶터이자 하나의 마을로 인식하게 되었다. 대천천네트워크는 공간적 분화를 넘어 토착민과 이주민을 엮어주는 운동이자 관계망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아가 '공생'의 가치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어 : 도시화, 분절화, 연대, 관계망, 공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urban sprawl and their ramifications, i.e. segmentation and hierarchization on the spatial structure as well as populational composition, focusing on Daecheon - Village and Daecheoncheon - Network in Busan, and to examine not only the solidarity between constituents transcending the segmented spaces but also the internal values operating inside through the Daecheoncheon - Network. Due to the large - scale housing development in the 1980s to 1990s, Daecheon - Village has been transformed from a rural village to a town. In this process, the original single space became segmented into Daecheon - Village and apartment complex. This spatial segmentation divided the populational composition into old natives and young immigrants. However, the Daecheoncheon - Network created by solidarity between the bodies of two localities enabled the residents to resolve the urgent issues of localities, recognizing their own space of living not as segmented and hierarchic but as the communal site of life and one village where they will live together. Daecheoncheon - Network was the movement and network to connect natives and immigrants transcending the segmented space and went so far as to make a motive to create one community with the value of 'symbiosis.'

Key Words : urban sprawl, segmentation, solidarity, network, symbiosis.

1. 들어가며

마을, 도시, 지역 등은 내·외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산업화, 도시화, 도시재개발, 세계화 등으로 야기된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은 획일화, 파편화, 위계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외부 요인에 의한 직접적인 공간구조의 변화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과정, 관계,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공간을 해석하려

는 시도들도 있다.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으로서의 도시(공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구조가 아니라 '관계', '과정'으로, 즉 위상학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이다(신지영, 2013; 코소, 2013).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는 대립, 투쟁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구축되고 그 관계들이 반영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공간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인구,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HK Professor,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cool1227@pusan.ac.kr)

산업의 분포나 토지이용에 따른 분화, 소득이나 계층에 의한 주거지 분화 등에 대해 분석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탐색한다(최병두, 2016). 이처럼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시정책으로 야기된 공간구조의 변화 양상과 특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전국적인 규모나 도시, 군 단위를 대상으로 거시적으로 수행되었다. 인구나 산업의 분포, 토지이용 등에 관한 분석 자료가 대부분 도시 위주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소규모 지역의 공간구조나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사회 체제가 공간구조와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 단위보다는 소규모인 마을 단위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을은 주민들의 원초적인 일상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면서 국가의 지배와 통제가 관철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물리적, 구체적 장소로서 마을의 ‘공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구성원’, 즉 마을 주민들의 삶, 구성, 관계망 등도 외부의 다양한 힘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함께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이는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된 마을 단위의 공간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전근대적인 요소가 강력했던 농촌마을이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도시공간으로 재구성되면서 구성원들의 삶, 계층, 관계도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 단위의 연구는 도시 단위의 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공간과 구성원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공간을 과정, 관계로 접근하여 해석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기간에 급격한 경제 성장과 압축적 근대화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전략은 필연적으로 도시공간의 물리적 확대를 야기하게 되었다.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주택 수요가 늘어나 도시공간은 주변의 농촌지역으로까지 급속도로 확장된 것이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대천마을은 산업화, 도시

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곳이다. 1970년대 중반 도시기반시설과 공장들이 들어서고 198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 상업시설들이 건설되었다. 1980년 6,934명이었던 화명동 인구는 1990년 32,769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95년 이후 부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화명동은 꾸준히 늘어나 2015년 기준 96,497명이 거주한다.¹⁾ 하나였던 공간은 대천마을과 택지개발로 들어선 중소형 아파트단지, 즉 쇠퇴지역과 개발지역으로 나누어졌다.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 토착민의 공간과 이주민의 공간, 노년층 중심의 공간과 청장년층 중심의 공간으로 분리된 것이다.

최근 이런 공간의 분절 가운데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마을 공동의 자연자원인 ‘대천천(大川川)’을 매개로 연대한 ‘대천천네트워크’가 바로 그것이다. 1990년대 이후 새롭게 건설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단체 ‘지역발전협의회’와 화명초등학교 졸업생의 모임 ‘화명포럼’이 주축이 된 대천천네트워크는 대천천과 마을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화 과정이나 이에 따른 공간 변화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는 도시나 마을을 대상으로 신도시건설 이후의 공간 변화, 주민들의 인식 등에 대한 연구도 있다(주경식·박용우, 2010; 차윤정·공윤경, 2012; 김성준·안건혁, 2013). 또한 화명동을 사례로 주거환경 만족도, 혐오시설 입지, 마을 재생디자인(김재경, 1988; 전길현, 2000; 송명수, 2006; 방정아, 2008)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간구조 변화(공윤경, 2013) 등에 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하지만 구성원의 분절이나 이에 대응하는 주민들의 대안운동 등에 주목한 연구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시 북구 화명2동 대천마을과 대천천네트워크를 사례로 산업화, 도시화 등 국가 정책이나 사회 체제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된 분절화, 위계화가 공간구조만이 아니라 구성원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천천네트워크를 통해 분절된 공간을 넘어서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맺기 방식과 그 내면에 작동하는 가치를 찾아보고자 한다.

2. 공간에 대한 과정, 관계, 운동으로의 접근

마을(도시)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영역이자 하나의 생태계이다(Massey, 2005; 제이콥스, 2010).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은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의존하며 내외부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즉, 마을은 닫힌 시스템이 아니라 열린 시스템이며 안정적인 상태로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 대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²⁾ 때문에 건축물, 도로 등 마을을 구성하는 물리적 건조환경은 단지 ‘과정’의 참여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 이는 좋은 참여자가 될 수도, 나쁜 참여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마을은 변경 불가능한 유일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슈뢰르, 2010). 개인과 집단들의 상호작용, 경험, 이야기 등을 통해 마을은 생산, 재생산되고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 권력, 국가는 끊임없이 힘이 패인 공간을 만들어 재영토화 하면서 관계, 흐름, 과정을 통제하려고 한다(신지영, 2013). 각종 가치와 거대 서사를 내세워 공간을 구획하고 분절시키는 것이다. 즉, 자본과 국가는 스스로를 동일시하면서 자기와 다른 것을 배제하고 경계를 재편하여 공간을 위계적으로 배치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에 역행하는 운동, 즉 자본, 국가, 권력을 벗어나는 흐름은 탈영토화하거나 매끈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매끈한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서, 차원성이나 계량성보다는 방향성을 가지며 사건에 의해 점유된다(들뢰즈·가타리, 2003). 때문에 신자유주의 자본경제가 지배하는 모순적이고 복잡한 공간에서 국가의 매개나 통제 없이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움직임, 즉 ‘운동’은 마을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코소, 2013). 마을이란 건축물의 집합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집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집적 속에서 새로운 ‘관계’들이 출현하고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운동’의 집합이 마을을 만들고 또한 마을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자율적인 움직임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자본, 국가의 ‘흡과기’에 대항하는 ‘매끈하게 하기’ 운동인 것이며 여기서 운동은 되기(becoming)가 아니라 만들기(making)이다(신지영, 2013). 달리 말하자면, ‘운동’은 강요의 결과물이거나 어쩔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의 파생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세계를 중형하고 또 형태짓는 외적·내적 사회적 힘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며 그 대응의 산물”인 것이다(와강, 2000). 자본과 국가의 스스로 동일화 하는 병리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운동’이 일어날 때 매끈한 공간은 끊임없이 힘이 패인 공간 속을 가로지르며 매끈한 공간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

마을의 구성원들은 이런 관계와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공간을 지각하고 전유하고 또 형상화시킨다(슈뢰르, 2010). 나아가 자신들의 거주공간을 넘어 공간적 분할을 거스르며 또 다른 관계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³⁾ 즉, 자본이나 권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며 매끈한 공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과정은 “모든 가치를 파괴하는 과정(탈영토화)인 것처럼 보이나 결국 파괴되는 모든 가치를 다시 자본이라는 유일한 가치로 환원시키는 과정(재영토화)”이다(신지영, 2013). 따라서 자본의 재영토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이 아닌 다른 가치를 창조하거나 다른 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비자본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이다. 코소(2013)는 자본의 과정 자체를 벗어나는 원리들에 대해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 원리는 아나키스트적 원리, 즉 자율(autonomy), 자주연합(voluntary association),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 상호부조(mutual aid),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이다. 이 원리들은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코소는 다양한 형태의 광적인 타자 배척에 맞서기 위해 이런 실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신지역지리학이나 사회공간이론에서 제시된 다차원적 스케일, 상호관계성, 네트워크 등의 개념들이 최근 지리학 연구에서도 활용되고 있다(전중환, 2011; 최병두, 2014; 최병두, 2016). 특히 개별 지역이 아닌 지역 간 관계의 차원에서 공간을 분석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폐쇄, 분절된 지역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고

도시화에 의한 공간의 분절과 구성원의 연대

변화하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여기서 지역은 주어진 물리적 실체 또는 사물을 담는 용기라는 개념을 넘어서 '사회적 사물과 그들 간 관계를 반영한 사회구성물'이며 또한 개인적, 집단적 실천과 인식으로 재현되는 물질적이지자 담론적 구성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공간(마을)은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 다양한 구성원 또는 조직 간의 관계, 운동으로 형성되고 인지되는 것이다. 또한 정적인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절된 공간의 주민들이 대천천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하나의 삶터로 인식하는 과정, 공간과 구성원의 분절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운동) 등에 대해 구체적, 미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도시화에 의한 공간과 계층의 분절

1) 도시화에 의한 공간의 재구성과 분절

과거 화명동에는 대천마을, 와석(화잠)마을, 수정마을, 용당마을 4개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그 중에서 대천천 주변에 형성된 대천마을은 양달, 음달, 용동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대천마을을 포함한 화명동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대천마을은 큰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는데 주거시설보다는 복지시설과 도시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섰다(공윤경, 2013). 대천마을 양달 뒷산에 고아원(1972), 양로원(1975)이 자리를 잡았고 마을 음달 산담에 정수장(1975), 변전소(1978)가 건설되었다.

1960년대 이후 부산은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급속한 산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이는 자본과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동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도시공간을 새롭게 만들거나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주택 공급은 여전히 그에 미치지 못하였다.

택지난, 주택 부족으로 인해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가 심해지자 부산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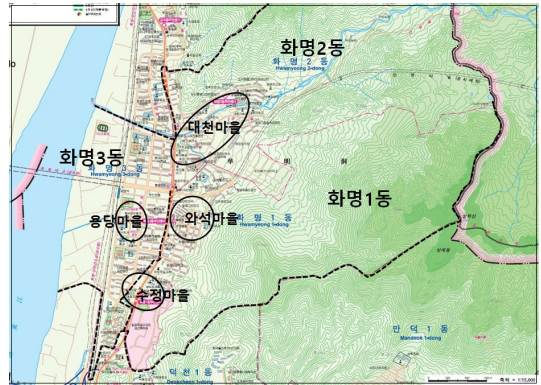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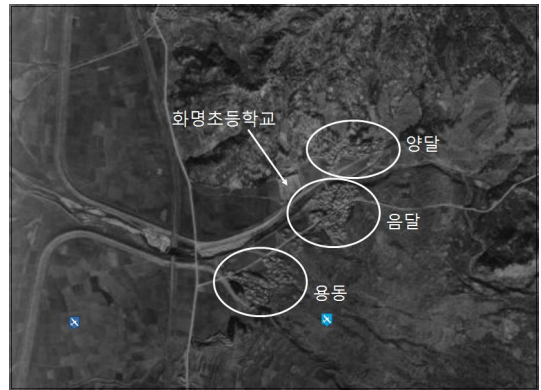


그림 1. 화명동과 4개의 자연마을



출처: 국토정보맵(<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그림 2. 1954년 대천마을(항공사진)

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⁴⁾ 그 일환으로 198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 북구에는 12개의 택지개발지구, 그 중 화명동에는 4개의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고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부산시 북구, 2015). 당시 부산의 외곽 지역이었던 북구는 다른 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택지 공급이 용이한 변두리 농촌마을까지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논과 밭, 구릉지나 산비탈, 공장 이전지 그리고 자연마을들이 사라졌다.

화명3동(화명2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규모 쓰레기매립장이 택지로 조성되고 지하철 개통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가격은 급등하였다(동아일보, 1987.11.03). 주택난 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은 또 다시 지

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복구에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대천마을도 주거지역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1980년 후반 대천마을 용동(화명1택지개발지구)에서 주거지로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1987년 해당 면적의 절반 이상을 단독주택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소형 평형의 저층아파트(480세대, 11개 동)가 건설되었다. 이어 1990년대 화명신도시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천마을 양달 주변(화명3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곳은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대상 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한 주택용지였다. 80m² 이하의 시영아파트와 100m² 이상의 중형아파트가 건설되었는데 화명1, 3동에 들어선 아파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형 평형의 임대, 분양아파트가 많은 편이었다.

초기 택지개발사업은 대천마을 용동지역처럼 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공존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공기단축, 시공용이, 원가절감, 공간효율 증대 등을 내세우며 양달 주변지역처럼 아파트단지만으로 대량 공급되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미개발지로 여겨졌던 농촌마을은 개발과 발전의 논리에 따라 도시의 주거공간으로 변해 아파트단지로 채워졌다. 대량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공간의 균질화, 획일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줄레조, 2007; 정기용, 2008).

와석(화잠), 수정, 용당마을은 아파트건설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대천마을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마을 주변의 농지와 산비탈에 만들어져 아파트단지와 자연마을인 대천마을이 공존하는 형태가 되었다(그림 3~5 참조). 도시공간의 팽

창으로 농촌이었던 대천마을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바뀌는 경제적 변화와 함께 농업용지에서 아파트로 채워진 주거지역으로의 공간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간변화는 아파트단지와 자연마을,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으로의 공간적 분리를 야기하였다.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공간이 이질적인 두 개의 공간으로 분절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거대자본의 작동 원리에 따라 그리고 성장과 개발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국가라는 매개를 통해 자본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재영토화 되었다. 이는 자본과 국가가 힘을 파서 관계, 흐름들을 통제하며 공간을 구획하고 경계지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천마을은 점차 쇠퇴하고 있다. 화명동에 두 곳의 재개발사업구역이 있는데 모두 대천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대천시장 일대(음달)와 화명초교 주변지역(양달)이 그곳이다. 노년층은 증가하고 새로 유입되는 청장년층은 거의 없다. 1980~1990년대 건설된 단독주택이나 연립주



그림 3. 화명2동: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



그림 4. 1980년 대천마을 일대



출처(그림 4, 5): <http://hur972.blog.me/110138304915>

그림 5. 2012년 화명2동 일대

택은 노화되었고 대천시장은 상권을 잃어간다.

대천시장은 과거 화명동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었다. 그러나 주변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등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중노년 구매층의 소비문화적 수요를 담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 상점만이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공윤정, 2013). 신도시조성사업으로 들어선 화명3동의 상업시설들은 신자유주의 자본경제의 급속한 시공간적 압축을 반영하고 있는데 반해 대천시장은 상대적으로 자본, 시간적 층위, 소비연령과 소비문화 등에서 주변화된 모습을 보인다(차윤정·공윤정, 2012).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이 이웃 지역과는 다른 특성으로 분화될 때 물리적 경관, 지역경제, 인구구성 등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즉, 주택의 노후화, 상권의 침체, 인구 감소 등과 같은 현상은 신도시로 개발되지 않고 주변화된 구중심지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시화에 의한 구성원의 분절

도시화를 거치면서 공간의 재구성, 분절과 함께 주민들의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농업에 종사하던 토박이 주민들은 생계터전을 잃어 마을을 떠나기도 했으며 새로이 건설된 아파트에는 많은 이주민들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지역으로만 유입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대천마을에는 약 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로 신축된 아파트단지지역에는 대천마을보다 2.5배 많은 5,000세대 정도가 거주하게 된 것이다.⁵⁾ 토착민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율의 이주민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지역을 형성한 것이다.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은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구성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지역은 소형과 중형 평형의 아파트로 구성되어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주민들이 거주한다. 임의의 속성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을 위해 보편적, 획일적인 형태로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었기 때문에 핵가족의 중산층으로 구성된 정주공간이 조성되었던 것이다(새비지·워드, 1996). 그래서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는 대천마을에 비해 아파트단지지역은 상대적

로 비슷한 연령의 경제수준을 가진 계층이 모여 나름의 집단 간 동질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대천마을은 아파트단지지역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 고령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 예로 표 1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화명1동은 211명(전체 동 인구의 약 0.5%), 화명3동은 140명(전체 동 인구의 약 0.4%)인데 반해 화명2동은 536명(전체 동 인구의 약 2.9%)이다. 다른 동에 비해 화명2동의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대부분이 대천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곳의 재개발구역에 많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귀원, 2010). 65세 이상 인구비율에서도 화명2동은 11.33%로 다른 동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사회인구적 특성상 핵가족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천마을에 중노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65세 이상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인구	45,382	18,525	32,59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11 (119세대)	536 (318세대)	140 (83세대)
비율	0.46%	2.89%	0.43%
65세 이상	3,003	2,099	2,925
비율	6.62%	11.33%	8.98%

자료: 부산시 복구, 2015 구정백서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5년 12월 말)

이처럼 자연마을과 아파트단지로의 공간 분리는 인구 규모, 구성적 측면에서 토착민과 이주민, 노년층과 청장년층, 다양한 계층집단과 중산층 집단 등과 같이 구성원의 분절을 야기하였다. 이런 구성적, 계층적 차이로 인해 대천마을 토박이 주민들과 아파트단지 이주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은 거의 없었다.

두 지역 간 교류 단절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주민들 간의 교류도 미미한 편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 간 교류는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02년 부산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단지지역(화명3택지개발지구) 내 약 7,000m²의 유희부지에 추가로 중형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도시기반시설의 추가 없이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건설된다는 것은 아파트단지의 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를 야기하여 교통이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도시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아파트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주민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당면한 현실의 문제였기 때문에 함께 단합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의 바람대로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이 계획을 취소하자 주민들은 유희부지의 활용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의논한 결과 고등학교를 유치하기로 결정하였고 부산도시개발공사에 이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쳤다(대천천네트워크 사무처장 강호열의 구술, 2016년 3월 22일, 이하 강호열로 표기).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지만 학교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3,000세대가 3개월간 농성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3년 '화명2동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여자고등학교가 들어섰고 2008년 첫 입학식이 거행될 수 있었다.

아파트 추가건설 반대, 고등학교 유치 등의 사건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소통, 단결하게 되었고 나아가 주민주도형 조직인 지역발전협의회로 확장될 수 있었다. 외부의 압력, 지역의 문제에 함께 대항하여 목적을 달성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주체의식, 공동체의식, 신뢰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또한 지역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이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2002년 대천마을에서는 화명초등학교 동창회가 중심이 된 '화명포럼'이 만들어졌다. 구성원 대부분은 대천마을에 거주하는 30~40대의 토박이 주민들이었다. 화명포럼은 하천주민운동단체로서 대천천지킴이단을 만들어 대천천 보호, 탐사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대천천 생태자료집을

발간하고 대천천환경문화축전을 주최하였다(이귀원, 2010). 아파트단지지역의 지역발전협의회가 아파트 추가건설 반대, 고등학교 유치 등의 운동을 펼칠 때 화명포럼의 일부 회원들이 동참하기도 했으며 화명포럼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지역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공간의 분절로 인해 두 지역 구성원들 간에 소통과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파트 추가건설 반대, 고등학교 유치 등과 같이 아파트단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두 지역을 이어주는 계기로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아파트단지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함으로써 지역발전협의회와 화명포럼은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 수 있었으며 이는 연대를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4. 구성원의 연대와 공생으로의 가치 전환

1) 구성원의 연대와 대천천네트워크

2000년대 화명2동에 두 개의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대천천네트워크가 그 중 하나이다.⁷⁾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천천네트워크는 비슷한 시기 아파트단지지역과 대천마을에서 각각 만들어진 지역발전협의회와 화명포럼이 화명2동의 상생을 위해 2004년 6월 통합한 조직이다. 여기에는 화명2동의 각종 기관·단체(15개)⁸⁾,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7개), 학교(10개교) 등이 연대하였다. 초기 단체 가입의 형태로 출발했던 대천천네트워크는 2014년 개인 가입 형태로 바뀌면서 현재 회원은 공공기관, 단체와 함께 개인도 포함되어 있다.

대천천네트워크는 토착민, 이주민 상관없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주민자치를 원칙으로 한다. 코소(2013)가 자본의 과정 자체를 벗어나는 원리라고 주장하면서 가치를 부여했던 자율, 자주 연합, 자기조직화, 상호부조 등을 실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대천천네트워크가 발족되면서 지역발전협의회는 흡수되었고 화명포럼은 현재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역발전협의회, 화명포럼 등의 단체들이 대천천네트워크로 통합, 연대될 수 있었던 요인은 크

게 관계망 형성, 공통의 가치(목적)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 중 하나는 통합 이전에 이미 각 단체 구성원 간의 교류와 소통으로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통합할 때 일부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강호열). 화명포럼의 경우에는 마을의 정통성을 가진 단체로서 조직, 유지되고 있는데 굳이 아파트단지지역 단체와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당위성에 관한 것이었다. 지역발전협의회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통합을 반대하는 구성원들을 설득한 사람들은 지역발전협의회 회원이면서 화명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던 구성원들이었다. 이들은 아파트단지지역에 거주하는 화명초 졸업생들로서, 지역발전협의회 아파트 추가건설 반대운동과 고등학교 유치운동에 화명포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화명포럼의 각종 활동과 행사에 지역발전협의회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원, 단체 간 교류와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대천천네트워크가 창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연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두 단체는 물론 연대한 각종 단체, 아파트단지와 학교들이 대천천의 생태환경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을 하나의 마을, 즉 살기 좋은 '우리 마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운영규약(제2조)에 따르면 "대천천네트워크는 대천천 지역의 지역 주민 및 제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천천의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과 인간이 함께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대천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대천천네트워크가 분절된 공간과 구성원을 아우르는 공존의 전략으로서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천천네트워크는 대천천을 매개로 연대한 단체로서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을 하나의 마을로,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로 활성화하고자 함이었다.

이와 같이 구성원, 단체 간의 관계망과 연대로 설립된 대천천네트워크가 지역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금정산 KTX 터널공사 때문이었다. 대천천네트워크가 발족된 직후 금정산 고속철도 장대터널공사가 시작되었다.⁹⁾ 터널공사를

위해 마을 위쪽으로 사갱이 뚫리고 여기서 나온 흙은 마을을 지나는 산성로를 통해 운반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었다.¹⁰⁾ 이는 교통체증,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히고 대천천의 생태환경도 파괴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에 대천천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KTX 터널공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천천네트워크가 화명2동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단체들을 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2년 정도 이어졌던 반대운동은 2006년 공사는 허용되되 대천천네트워크의 요구조건을 관철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마무리되었다. 그 중 하나는 터널에서 나온 흙의 일부를 수목원 근처 계곡 매립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을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간대를 정해서 반출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조건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이었다.

문화시설 건립에는 부지 선정, 부지의 용도변경, 부지 가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대천천네트워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공건설사, 국토교통부, 경찰청, 북구청 등과 꾸준한 협의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시공건설사가 부산도시개발공사 소유의 공공용 부지(1,034m²)를 매입하여 3층 규모의 마을문화시설을 신축한 후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9년 대천천네트워크는 문화시설을 기부받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고 2010년 준공된 대천천문화환경센터를 소유, 관리하게 되었다(이귀원, 2010).

KTX 사갱터널공사 반대운동에서 각종 피해보상, 문화시설 건립에 이르기까지 대천천네트워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또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연대한 조직이라는 구성적 특성과 함께 지역의 당면한 문제였던 KTX 터널공사를 원만하게 해결한 실천적 운동을 통해 대천천네트워크는 마을을 대표하는 조직이 되었다. 때문에 대천천네트워크 회의에 주민자치센터 사무장, 구의원 등이 참석하기도 하고 구청, 시청과의 업무에서는 협치의 파트너가 되기

도 한다(이귀원, 2010).

창립 이후 대천천네트워크는 마을의 현안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민참여형 대천천살리기사업, 낙동강수질개선사업,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천천탐사단, 대천천학생환경지킴이단 그리고 대천천문화환경축제, 환경교실, 어린이곤충체험전 등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참여만이 아니라 부산하천시민연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의 여러 환경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금정산, 대천천, 낙동강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대천천작은음악회, 대천천가족마라톤대회, 대천천사생대회, 단오야 놀자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대천천네트워크는 환경공동체, 생태친화적인 마을조성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저탄소 실천교육, 도시농업(옥상텃밭, 자투리텃밭)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12회 대천천문화환경축제는 지역의 13개 단체, 3천여 명이 참여하였다.¹¹⁾

대천천네트워크가 개최한 각종 행사나 축제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강호열). 창립 초기 개최했던 주민한마당문화제는 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중심이 되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를 복원하였는데 이 행사부터 대천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주민한마당문화제는 주로 아이들이 있는 청장년층 중심의 행사였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았던 것이다. 달맞이행사는 과거 대천마을에서 해마다 열렸던 축제였기 때문에 대천마을 주민들, 특히 중노년층에게는 친숙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천마을 주민들의 참여율이 증가했던 것이다. 이후 주민한마당문화제는 대천천문화환경축제에 흡수되었다. 달맞이행사(달집태우기행사)는 10년 정도 이어지다가 원래 주관하였던 대천마을 청년회로 다시 이관되어 계속 개최되고 있다.

이제 대천천네트워크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대천마을, 아파트단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화명1동과 화명3동, 금곡동 등 주변 지역의 주민들도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되고 있다.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는 공동체의식과 애乡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여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었고 특히

마을의 학생에게 마을의 전통, 문화, 환경을 바로 알게 함으로써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제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6). 대천천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으로 화명2동 주민자치센터는 2005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프로그램분야 최우수상을, 2014년 부산녹색환경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 대천천네트워크의 의미와 공생으로의 가치 전환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처럼 하나의 공간이 이질적인 역사와 구성을 가진 두 개의 공간으로 분절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신도시 건설,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으로 개발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주변지역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천마을 사례처럼 공간의 분화를 거슬러 소통, 교류하면서 연대와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¹²⁾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 있는 사건’과 ‘지역 간 연대조직’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된 ‘사건’, 즉 KTX 사갱터널공사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때 주체적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KTX 터널공사라는 지역에 닥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대천마을인지 아파트단지인지, 또는 대천마을 주민인지 아파트단지 주민인지 구분할 필요 없었다. 아파트 추가건설 반대, 고등학교 유치, 그리고 이어진 KTX 사갱터널공사 반대, 피해보상, 문화시설 건립 등 지역의 현실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함께 대처해 나갈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에 발생한 ‘사건’은 사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 스스로의 경험과 실천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속감, 애착심, 공동체의식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을 때 ‘사건’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자본과 국가로 인해 흩어 패인 공간을 비자본적 가치를 지향하는 매끈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천천네트워크와 같은 지역 간 ‘연대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은 공간의 생성과 역사가 다르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구성 또한 다르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천천네트워크라는 연대조직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실천으로, 또 다른 관계로 연결되는 자율적인 운동을 만들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거주공간을 분절되고 위계된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삶터, 하나의 마을로 인식하게 되었다.¹³⁾ 따라서 대천천네트워크는 공간 분절을 넘어서 하나의 공생체로 상호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스스로를 동일화 하면서 자기와 다른 것을 배제, 배척하고 끊임없이 공간을 구획, 분절시키는 자본과 국가에 대항하면서 자율, 자주연합, 자기조직화, 상호부조 등의 원리에 가치를 부여한 결과였다.

마을(공간)은 자본이나 권력, 국가 정책이나 사회 체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대천천네트워크와 같은 구성원, 집단 간의 관계망과 연대 또는 자율적인 운동의 영향으로 공간은 새롭게 인식되고 재구성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공간은 “정태적이거나 주어진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간 또는 집단 간 관계, 연대, 운동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객관적 실체이며 또한 상징적으로 (재)형성되는 구성체”인 것이다(최병두, 2016). 따라서 공간은 경계 지워진 단위지역으로서의 영역성도 가지지만 “내적, 외적 네트워크에 의해 생성, 변화하는 관계성”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절된 공간에서 만들어진 각각의 단체들이 연대하여 대천천네트워크를 설립한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천천의 생태환경보호에서 출발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마을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함이었다.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토착민과 이주민, 서로 다른 집단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터를 추구한 것이며 어울려 살기 위한 공존의 전략으로서 ‘공생’을 선택한 것이다. 즉, 자기와 다른 것(타자)과 대립, 투쟁하기보다는 얽힘(관계)의 사고로 비자본적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조직들을 연대하고

통합하기 위해서는 자본, 권력 중심의 가치에 대항하는 정반대의 가치, 즉 ‘공통적인 것’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치 개념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의식 속 가치들의 가치 전환(transvaluation of values)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코소, 2013). 화명포럼, 지역발전협의회 등의 개별 단체들이 추구한 목적과 가치는 다양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체들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대천천네트워크라는 연대조직을 만들었다. 다양한 가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그 중에서 공존을 위한 전략으로서 ‘공생’이란 것으로의 가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공간과 구성원의 분절을 넘어 ‘공생’의 가치로 하나의 마을에서 하나의 공생체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이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대천마을과 대천천네트워크를 사례로 산업화, 도시화 등 국가 정책이나 사회 체제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된 분절화, 위계화가 공간구조와 주민들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절된 공간의 주민들이 대천천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고 하나의 삶터로 인식하는 과정, 공간과 구성원의 분절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운동) 등에 대해 구체적,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분절된 공간을 넘어서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 맺기 방식과 그 내면에 작동하는 가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1980~199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천마을은 농촌에서 도시로 빠르게 전환되었다. 하나의 공간이었던 대천마을은 이 과정에서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으로 분절되었다. 이런 공간의 분절에 따라 주민들의 구성 또한 토착민과 이주민, 중노년층과 청장년층으로 나뉘지게 되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과 개발, 성장을 우선시하는 국가의 작동원리에 따라 흩어 패인 공간으로 재영토화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흐름, 과정들은 통제되고 자기와 다른 타자들을 배척하는 공간으로 구획, 배치되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본과

국가의 흠과기를 벗어나는, 탈영토화 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대천마을의 ‘화명포럼’과 아파트단지 지역의 ‘지역발전협의회’ 등 화명2동의 제 단체들은 환경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연대조직인 대천천네트워드를 설립한 것이었다. 대천천네트워드를 통해 주민들은 KTX 사갱터널공사 반대와 그로 인한 피해보상, 문화시설 건립 등 지역의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천천네트워드의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성취감, 애착심, 공동체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고 또한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로 분리된 공간을 하나의 공간(마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대천천네트워드는 자주연합, 자기조직화, 상호부조 등을 실천하는 연대조직으로서 공간과 구성원의 분절을 엮는 관계망이자 자율적인 운동이었다. 그리고 자본, 국가, 권력에 의해 흠이 패인 공간을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매끈한 공간으로 반전시킴으로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스스로 동일화하는, 자본의 자본화하는 움직임을 벗어나는 운동이며 자본, 권력이 아닌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화명포럼과 지역발전협의회가 각자의 공간에서 각각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 존재했지만 대천천네트워드로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본, 권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치, 공통의 가치로 전환했기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 경제를 이끌어 온 지배적인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로의 전환, 즉 ‘공통적인 것’으로의 가치 전환을 ‘공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천천네트워드는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구성하는 사회, 문화, 생태적 실천운동이자 관계망이며 아울러 ‘공생’의 가치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

1) 아래 표 참고

표 2 부산시 및 화명동 인구 변화

(단위: 명)

구분	부산시	화명동	화명1동	화명2동	화명3동
1966	1,426,019	-	-	-	-
1970	1,876,391	-	-	-	-

1975	2,450,125	-	-	-	-
1980	3,156,931	6,934	-	-	-
1985	3,512,113	26,435	-	-	-
1990	3,795,892	32,769	-	-	-
1995	3,809,618	28,137	-	-	-
2000	3,655,437	54,937	-	-	-
2005	3,512,547	(93,209)	36,910	21,619	34,680
2010	3,393,191	(82,292)	27,826	20,462	34,004
2015*	3,513,777	(96,497)	45,382	18,525	32,590

자료: 통계청(<http://kostat.go.kr>)

*: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2015년 12월 말)

- 2) Massey(2005)는 정적인 공간개념을 해체하고 역동적인 공간의 양상을 3가지로 논하는데 상관관계의 산물로서의 공간, 다중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서의 공간, 닫힌 시스템(closed system)이 아니라 항상 과정(in process)에 있는 것으로서의 공간이 그것이다.
- 3) 이에 대해 코소(2013)는 간(間)운동적 정치의 시대가 부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신용을 잃은 국가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향후에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중 ‘운동’들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4) 1980년 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은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과 택지공급에 새로 선매제를 도입하여 택지개발을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주도해 왔지만 정부는 2014년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이 법을 폐지하기로 하고 2017년까지 대형 공공택지공급을 중단한 상태이다.
- 5) 1987년 건설된 우신아파트에 480세대가 거주한다. 그리고 1990년대 벽산강변타운, 도시화명그린2차(A, B), 그린미르, 그린숲속, 화명코오롱, 화명경남아파트가 준공되어 약 4,500세대가 입주하였다.
- 6) 통 단위 인구자료가 있다면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 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5세 이상 인구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통 단위로만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 7) 다른 하나는 복구 공동육아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문화공동체이다.
- 8)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통장협의회, 새마을금고,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공동육아협동조합, 대천마을학교 등 화명2동의 각종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 9) 부산~서울간 경부고속철도(KTX) 노선 가운데 가장 긴 터널구간인 금정터널(20.64km)은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앞에서 시작하여 동구 좌천동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 10) 사갱은 터널공사를 위한 작업갱도이며 터널 완성 후에는 일반적으로 비상통로로 사용된다. 금정산 KTX 터널공사의 경우 74만m³(덤프트럭 24만대 분량)의 발굴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 11) 참가한 단체는 북구공동육아협동조합, 맨발동무도서관, 대천마을학교, 랄랄라공동육아어린이집, 푸른바다 아이쿱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서부지회, 부산학부모연대화명금곡지회, 북구합두레, 부산참빛학교, 물고기공방, 반쪽이공방, 화명꽃밭이다.
- 12) 부산의 경우 해운대 신도시, 기장 정관신도시 그리고 많은 재개발·재건축구역이 있지만 대천천네트워크 같은 연대조직이 있는 지역은 없다.
- 13) 실제로 주민들은 대천마을과 아파트단지지역을 아울러, 즉 화명2동을 '대천마을'이라고 부르며 원래 대천마을을 '본동'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강호열).

문헌

- 공윤경, 2013, 농촌에서 도시로의 공간구조 변화와 특성-부산 북구 화명동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1), 97-110.
- 김성준·안건혁, 2013, 신도시 조성 이후 신·구도시의 계층변화 및 양극화-성남시 사례, 한국도시계획학회지, 14(1), 53-66.
- 김재경, 1988, 신주거지역의 구매시설 이용에 관한 연구-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산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6, 주민자치센터와 NGO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프로그램 "대천천 네트워크"-부산광역시 북구 화명2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55, 86-95.
- 들뢰즈, 질·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2003,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새물결, 서울 (Deleuze, G. and F. Guattari,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Les Éditions de Minuit, Paris)
- 방정아, 2008, 생태·문화·커뮤니티 가치 발견을 통한 마을 디자인 연구, 동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시 북구, 2015 구정백서.
- 새비지, 마이크·알렌 워드, 김왕배·박세훈 역, 1996, 자본주의 도시와 근대성, 한울, 서울(Savage, M. and A. Warde, 1993, *Urban Sociology, Capitalism and Modernity*, Macmillan Press Limited of London, UK).
- 송명수, 2006, 신시가지 주거환경에 대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시 화명, 해운대신시가지지를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슈뢰르, 마르쿠스, 정인모·배정희 역, 2010,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서울(Schroer, M., 2005, *Raume, Orte, Grenzen: 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s*, Suhrkamp).
- 신지영, 2013, 도시화와 주체의 문제, 철학논총, 73, 135-158.
- 와강, 로익, 김주경 역, 2000, 2002, 거꾸로 가는 유토피아, 미국에서, 피에르 부르디외의 편, 세계의 비참 I, II, III, 동문선, 서울, 269-338 (Wacquant, Loïc J. D., 1998, Über Amerika als verkehrte Utopie, in Bourdieu, P. u. a. (Hg.), *Das Elend der Welt. Zeugnisse und Diagnosen alltäglichen Leidens an der Gesellschaft*, Konstanz: Universitätsverlag, 169-178).
- 이귀원, 2010, 대천마을 이야기, 부산 우리마을 네트워크 창립식 및 활동가와 전문가가 말하는 마을만들기 포럼, 24-32.
- 전길현, 2000, 혐오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부산시 북구 화명2지구 쓰레기 소각장 입지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중환, 2011, 근대이행기 경기만의 포구 네트워크와 지역화과정, 문화역사지리, 23(1), 95-118.
- 정기용, 2008, 사람·건축도시, 현실문화, 서울.
- 제이콥스, 제인, 유강은 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서울(Jacobs, J., 1961, 1993,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 주경식·박용우, 2010, 용인시 주택시장의 성장과 공간적 분화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5(2), 240-255.
- 줄레즈, 발레리, 길혜연 역, 2007,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후마니타스, 서울(Gelézeau, V., 2003, *Séoul, ville géante, cités radieuses*, CNRS Edition).
- 차윤정·공윤경, 2012, 간판매체에 반영된 주변화 양상과 지역인의 의식-부산 정관 덕산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4(2), 138-154.
- 최병두, 2014,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1) 발달 배경, 연구 동향과 전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4), 357-378.
- 최병두, 2016, 한국의 신지역지리학: (2) 지리학

분야별 지역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1), 1-24.

코스, 이화사부로, 서울리다리티 역, 2013, 죽음의 도시, 생명의 거리, 갈무리, 서울(高祖 巖三郎, 2010, 死にゆく都市, 回歸する巷 ニューヨークとその彼方, 以文社).

Massey, D., 2005, *For Space*, Sage.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맵, <http://map.ngii.go.kr/ms/map/NlipMap.do>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부산시 북구, <http://www.bsbukgu.go.kr>

부산시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busan.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 교신 : 공윤경,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이메일: cool1227@pusan.ac.kr, 전화: 051-510-7441, 팩스번호: 051-581-5655)

Correspondence : Kong, Yoon Kyung, Korean Studies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63beon-gil 2, Busandaehak-ro,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e-mail: cool1227@pusan.ac.kr, phone: +82-51-510-7441, fax: +82-51-581-5655)

(접수: 2016.07.24, 수정: 2016.08.15, 채택: 2016.08.25)